

출장보고서

출장자: 이재형

I. 일본의 연구소 체제와 글로벌·거버넌스 연구

1. 일본의 연구소 체제의 개요

□ 일본의 사회과학분야 연구소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없음.

- 정부연구소: 정부부처내의 한 부서로서 운영되는 연구소
- 공공연구소: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공동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
- 민간연구소: 민간기업 혹은 단체의 한 조직으로서, 혹은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는 연구소

□ 정부연구소

-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부처내 1개 부서로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경제사회분야 연구기능과 함께 경산업부로서 국민계정(SNA), 경기동향지수 등 통계 작성업무 수행
 -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RIETI): 경제산업성 소속 독립행정법인임.
 -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PRI): 재무성의 한 부서로서 연구기관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연구센터(CPRC);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부서로서 운영
- 일본의 정부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외부학자가 계약직으로서 소장직을 수행하며, 자체 연구인력을 보유하기도 하나, 대체로 외부연구자원에 많이 의존함.
 - 객원연구원
 - 연구회

- 위탁연구

- 정부연구소는 주로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치중하며, 현안 정책개발은 해당 정책부서가 직접 수행하고 있음. 정책개발에 있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혹은 외부 위탁연구에 대한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임.

□ 공공연구소: 정부 혹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비영리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된 연구소이며, 민간의 재정적 혹은 인적지원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주로 공공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자체 연구기능은 크지 않으며, 연구조성사업, 외부연구자원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상근직원 은 대체로 연구기능보다는 연구관리기능에 치중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정부와 민간의 출자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법인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연구 수행
- 환일본경제연구소(ERINA): 니이가타현이 중심이 되어 공공부문과 민간의 공동자금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ICSEAD): 기타큐슈시가 중심이 되어 공공부문과 민간의 공동자금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자체 연구인력중심으로 연구수행
-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내의 한 조직으로서 운영되는 연구소. 대규모 연구진을 자체 보유

□ 민간연구소: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연구소와 공공정보를 창출, 제공하는 소규모 연구소들이 있음.

- 주식회사의 형태로 자체 수익모델을 통해 운영되는 연구소. 상장기업도 많으며, 주로 기업대상 컨설팅 사업을 수행. 연간 매출액 수조원, 종사자수 수천명에 이르는 대형 연구소.
 - 노무라종합연구소(NRI)
 - 미쯔비시 종합연구소(MRI)
- 재단법인으로서 주로 민간기업 혹은 회원들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연구소로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소
 - 국제통화연구소(IIMA)

2.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기관

□ 일본에서 글로벌·거버넌스 전문연구기관이라 할 만한 연구소는 없음.

- 다만,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의 野上義二(노가미 요시지) 이사장이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식견과 열정을 갖고 있어, 글로벌·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주제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음.
- 여타 연구소들은 특정분야(예컨대,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에서 고유의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도 함.

□ 일본의 글로벌·거버넌스와 관련한 기본입장의 정립, 장기전략 연구는 정부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이 글로벌·거버넌스를 포함한 일본의 중장기 대외전략을 기획·입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종합외교정책국은 이러한 대외전략 수립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음.
- 종합적 대외전략의 수립을 위해 수상, 외무성 등 거버넌스 일본의 기구들은 세르파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함.

II.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 개요

□ 특징

- JIIA는 글로벌·거버넌스 전문연구기관은 아니지만, 민간 연구소 가운데서는 글로벌·거버넌스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외무성의 주도로 설립한 연구소로서, 대표인 이사장(소장 겸직)은 대대로 외무성 고위간부 출신이 맡고 있으며, 부소장은 외무성 현직공무원이 파견을 나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연혁

-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제문제 및 외교안전보장 정책을 연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싱크탱크임.
- 1950년대말부터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국가분열상을 노정하였음. 이러한 국론분열과 혼란상을 극복할 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대외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할 연구기관의 설립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JIIA의 설립에 있어서는 吉田茂元(요시다 시게모토) 전수상이 큰 역할을 하였음.
 - 2차세계대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와 조화를 도모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문제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지식보급을 도모하고, 또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화시키는 것이 필수조건이란 것을 통감한 요시다 전수상은 1959년 JIIA를 설립하여 스스로 초대회장에 취임하였음.
 - 다음해인 1960년 9월에 외무성 소관의 재단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았으며, 1976년부터는 해산된 사단법인 유럽·아시아협회의 업무를 계승하였다. 이후 JIIA는 일본의 중핵적인 국제문제연구기관으로서 발전을 지속하여 왔으며, 그 활동과 성과는 국내외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음.

- JIIA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도 정부, 학계, 매스컴 만이 아니라 넓게는 시민사회, 지역사회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과 활동 양면에서 발본적으로 개혁을 진전시키고 있음.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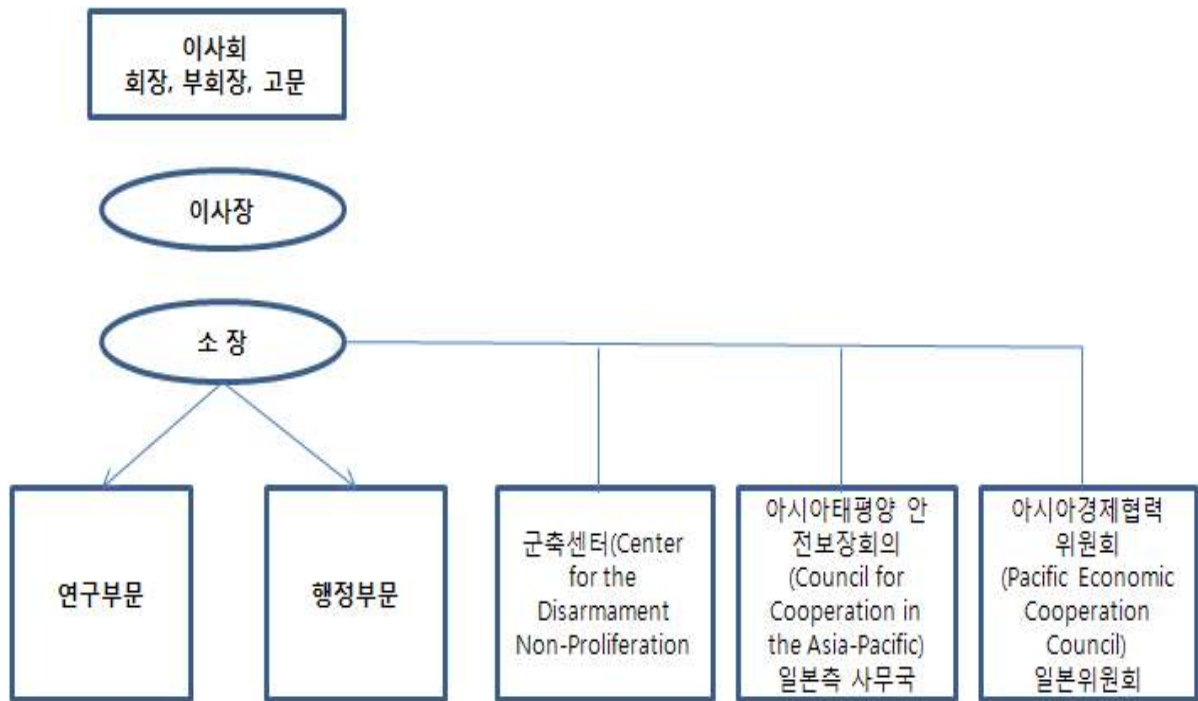
- 국제문제의 연구조사
- 국제문제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확산
- 전국의 대학 및 연구단체에 대해 국제문제에 관한 연구 장려
- 일본외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정책의 기획에 건설적인 구성을 제공
-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기여 함.

2. 조직 및 재정

□ 조직 및 인력

- 조직: JIIA는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장, 소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연구소 대표로서 이사장과 있음.
 - 이사장 아래 소장, 부소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사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있음.
 - 회장, 부회장, 고문은 주로 민간기업의 원로들이 담당하고 있음. 예를 들면 현재 회장은 공석중이나 부회장은 세이코 홀딩스 명예회장, 미쯔이-스미토 모은행 특별고문, 미쯔비시동경은행 상담역 등이 맡고 있음.
 - 조직은 연구 파트와 행정 파트로 구분되며, 이외에 아래의 3개 특별기구가 있음.
 - 군축·비확산센터(Center for the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 아시아·태평양 안전보장회의 (Council for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일본측 사무국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일본위원회

- 조직도



군축센터(Center for the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냉전종료후 군축 불확산 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제적 공통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새로운 대응을 위해 여론을 리드하고 국제사회의 합의형성에 공헌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이를 위해 민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 지식, 기술 등을 한곳에 집적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1996년 7월에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 군축·불확산촉진센터를 설치하였음. 군축센터는 일본의 적극적인 군축외교를 다방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각종의 활동을 행하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안전보장회의(Council for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협력의 실태를 검토하기 위한 항상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국제조직임. 안전보장에 관한 제문제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통해 이 지역의 안전보장 커뮤니티의 형성에 공헌하는 동시에 아세안지역포럼(ARF)를 비롯한 정부레벨의 활동에 대하여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활동의 주된 목적임.

- 인력

- 이사장겸 소장은 대부분 외무성 고위관료(대개는 사무차관) 출신이 맡고 있음. 임기는 3년인데, 연임하는 경우도 있음. 노가미 요시지 현 이사장은 외무성 차관출신임.
- 부소장은 외무성 과장급 인사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기타 연구원 및 직원들은 JIA가 자체 채용한 인력들임.
- 전체직원 수는 약40명 정도임. 이외에 임시직 직원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음.
- 연구원수는 15명 정도임. 연구원은 전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젊은 학자들로써, 2년단위로 계약직임.
 -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도 함. 10년 정도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음.
- 연구원들은 대체로 바로 학위를 받은 신규연구자들로서, 대개는 계약기간 연장 없이 대학교수 등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김.
 - 연구원들에 대한 보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자를 계속 붙잡아두기 어려운 형편이라 함.

- 재원

- 수입은 정부보조금(외무성)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됨. 2009년의 경우 보조금은 4.1억엔, 자체수입은 49백만원 정도로 보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재원현황
기본재산: 65,316천엔

- 보조금(결산)

(백만엔)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		433	430	437	424	419	412
지출	연구활동비	125	112	111	128	114	110
	연구관리비	145	158	153	131	152	152
	인건비	163	160	174	165	153	151
	합계	432	430	437	424	419	412

- 자기자금(결산)

(백만엔)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	법인회비	58	53	53	52	49
	개인회비	9	8	9	8	7
	도서관회비		1	2	1	2
	수탁연구등	59	48	84	95	103
	출판매출	10	5	5	2	1
	잡수입	10	2	1	1	5
	합계	146	118	152	159	167
지출	인건비	41	39	37	36	36
	(인수)	(29)	(28)	(27)	(25)	(26)
	운영관리비	33	37	61	41	45
	수탁연구등	42	41	33	80	86
	출판편집등	31	9	5	3	1
합계	147	125	136	160	169	

- 군축특별회계(군축·비확산센터)

(백만엔)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	239	276	269	264	253	247
지출	248	282	274	264	259	263

- JIA의 재정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임.
 - 정부보조금이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정부수탁연구의 경우에도 정부의 전체적인 위탁연구예산 파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또 연구비 배분에 있어서도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탁연구수입의 확보도 점차 힘들어지고 있음.
 - 특히 2009년 민주당의 집권으로 시작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사업재조정(事業仕分け)으로 인하여 특히 정부의 보조금 지출 및 연구사업예산이 크게 위축되었음.

사업재조정(事業仕分け): 국가예산의 개선에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예산집행 현장의 실태를 파악한 위에서 애초에 그 사업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하여 재원의 염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책, 제도, 조직 등에 대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적출하는 것으로서, 행정쇄신회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이나 국고보조금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2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나, 2009년 민주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3. 연구 및 사업

□ 연구분야는 정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환경 등 전분야에 걸쳐 있으나, 정치, 군사, 안보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담당부서 및 연구자: 특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전문연구자나 연구부서는 없음. 그러나 이사장인 노가미 요시지 씨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알려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주문에 의해 연구내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를 가능한 많이 다루도록 하고 있음.

□ 최근의 연구실적

- 아메리카 외교의 신조류-리버럴에서 보수까지
- 미중관계-냉전후의 구도와 전개
- 일본의 미사일 방위-변용하는 전략환경하의 외교·안전보장정책
- 페르샤만 아랍과 민주주의-이라크 전쟁후의 조망
- 남아시아의 안전보장
- 부시정권과 보수세력
- 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경제학
- 전환기의 ASEAN- 새로운 과제에의 도전
-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외교
- 글로벌화 시대의 중국
- 세계표준의 형성과 전략: 테줄레 스탠다드의 분석
- 탈냉전기의 중국외교와 아시아·태평양

□ 월간지 『국제문제』 발간: 국제문제는 JIIA가 발간하는 월간지로서 매호마다 특정의 큰 주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결과를 수록하고 있음. 최근호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 2010. 7 심각화하는 세계의 인구문제

- 2010. 6 국제규제의 교착(交錯)
- 2010. 5 아메리카의 현재
- 2010. 4 약동하는 중국 고뇌하는 중국
- 2010. 3 오바마정권과 기로에 선 아메리카
- 2010. 1 2010년대의 일본의 외교-10년간의 전망
- 2009. 12 전쟁법의 변용
- 2010. 11 국제정치의 구조변동
- 2010. 10 20주년을 맞이하는 APEC
- 2009. 9 세계공황과 국제정치

□ 국제회의 개최: 해외의 제휴 연구기관들과 국제공동회의 혹은 국제포럼을 수시로 개최. 이러한 행사는 연간 약 60-70회정도에 이르고 있음. 주요 포럼의 주제를 소개하면 이하와 같음.

- 국제회의
 - 제37회 윌리엄즈버그회의 개최: 세계금융위기, 식품 및 물의 안전보장, 핵확산 및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제로 17개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회의
 - 국제전략연구소와의 공동회의: 아시아에 있어서 글로벌한 전략적 도전을 주제로 일본, 아시아, 유럽, 미국의 약 50여명의 저명한 학자 및 정책당국자들이 참석
 - 유엔고등대학과의 공동회의: 환경보건외교 - 환경보호를 평화구축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 포럼
 - 마쯔야마 요이찌(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일본정부대표): 최근의 아프리카 정세와 일본의 아프리카 외교
 - 나가오카 요시노부(적십자 국제위원회 일본사무소장):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하여 - ICRC의 활동으로부터
 - 살룸·알리(버몬트대학 교수): 필요, 욕망, 지속가능한 미래-새로운 개발어젠다의 설정
 - 허미드 칼자이(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제2기 칼자이 대통령 정권-지금까지의 도전과 과제

- 존 홈즈(유엔인권문제 담당 사무차장): 새로운 인도적 과제-인도지원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

4. 핵심역량

□ 네트워킹

- 정부 관료들과의 네트워킹
 - JIIA는 민간연구소이지만 외무성으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무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위탁연구 등을 통해서 정부 및 관료들에게 정책개발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정책건의를 하며, 이 외에도 수시로 공식·비공식적 회합을 통해 정보교환
 - 이사장인 노가미 요시지 씨는 PECC 일본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sherpa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관료들에게 직접·간접적인 자문은 물론 다양한 국제회의에 민간대표로 참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국내 학자들과의 네트워킹
 - JIIA 출신 연구자들이 대학, 연구기관 등에 광범하게 진출해있음.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연구기반의 확충,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연구참여, 각종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음.
 - JIIA가 중심이 되어 학자들과 정부발주 연구과제에 공동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
 - 객원연구원으로의 활용, 위탁연구 발주, 연구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본 국내학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해외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
 - JIIA는 특히 개도국의 연구자들을 객원연구원으로 초빙하여 JIIA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기간은 3개월, 6개월 정도임. 이들 연구자들은 귀국 후 지속적으로 JIIA와 연계를 맺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JIIA는 이들을 해외펠로우라 명명하고 있음.

□ 해외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평화연구소(USIP),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틀란틱 카운실, 외교문제평의회(CFR), 전미외교정책위원회(NCAFP), 국방대학전략문제연구소(INSS), 컬럼비아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랜드연구소, 동서센터 등
- 아시아·태평양 지역
 - 중국: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CCPS),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CFISS) 등
 -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방위전략연구소, 정책연구소, 동남아시아연구소, 싱가포르국제문제연구소 등
 - 타이: 국제문제연구소
 - 말레이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말레이시아 이슬람이해 연구소
 -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필리핀: 전략개발문제연구소
 - 베트남: 베트남외교전략연구소
 - 캄보디아: 협력평화연구소, 방위문제연구소
 - 인도: 방위문제연구소, 델리정책그룹, 옹저버리서치 기금, 인도군연합연구소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전략방위연구센터, 로워연구소,
 -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제문제연구소
- 유럽·러시아
 - EU: EU안전보장연구소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
 - 프랑스: 프랑스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센터
 - 독일: 독일국제안전보장문제연구소, 독일외교정책협회
 -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 스위스: 제네바대학 고등국제문제연구소
 -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극동연구소
- 중동
 - 이집트: 아하람정치전략연구센터
 - 이란: 정치국제문제연구소
 - 요르단: 요르단대학 전략연구센터

-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연구소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성 외교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성 소속 정보연구센터
- 터키: 빌켄트대학 외교정책연구소

□ 내부역량

- 연구과제의 선정은 연구자 자율에 의한 것과 연구소 정책에 의한 것(중요 현안과제 혹은 이사장의 관심사항)이 있는데 그 비율은 3:7 정도임.
- 연구자들은 대부분 젊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연구에의 의욕은 매우 높음.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 연구소 내부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음.
- 노가미 이사장이 차지하는 JIIA에서의 위상, 그리고 일본 정책형성집단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사장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여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음.
-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나, 모든 연구에서 이러한 측면이 부각되도록 하고 있음.

5. 평가

□ 내부평가

- 연구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별한 연구평가 시스템은 없음.
- 이사장이나 부소장이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주제, 진행상황,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어 특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외부평가

- JIIA의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시스템은 없음.
- JIIA는 정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감사당국의 감사를 받음. 이 감사는 회계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활동이나 사업의 적절성, 성과 등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음.
- JIIA의 핵심업무에 대한 평가는 관련 정책당국이나 민간부문으로부터의 비

공식적·비계량적인 성과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함.

6. 문제점

□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임.

- 민주당 집권이후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출, 위탁연구비 전체 파이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또 이러한 지출에 대한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들의 시각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임.
-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파이를 두고 민간연구소들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 재정적 어려움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7. 한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 설립에 대한 의견

□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일본이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대해 높이 평가함.
- 앞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를 희망함.

□ 글로벌 거버넌스의 연구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글로벌 거버넌스 전문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연구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두가지 선택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감당할 의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다만,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더라도 콘텐츠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보완할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 기존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이러한 연구기능의 지속성, 체계화가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